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소속감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 세 영¹⁾

유 설 회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중간체계 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조사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청소년 5,050명(남학생: 2,472명, 여학생: 2,57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였고, 이는 청소년에 의해 보고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측정하였으며,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중간체계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졌다. 또한, 중간체계환경은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공동체 소속감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 소속감이 매개적 역할로 작용함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과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들 간 소통 활성화 및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청소년, 중간체계환경, 공동체 소속감, 주관적 행복감

* 이 논문은 (재)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2017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E-mail: shee05@nypi.re.kr)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 및 심리적 성숙과 더불어 정서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행동도 극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로(Berk, 2007/2009), 아동기에서 벗어나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된 역할과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다양한 발달과업들 중에서 입시 위주의 학업성취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업 부담감과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2009년 이후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교육, 보건과 안전 영역 및 물질적 행복, 가족과 친구관계 등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주관적 행복 영역은 계속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염유식, 김경미, 2017). 이는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행복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김영지 외, 2017)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행복감,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어 왔다(Diener, 1984; Ryff, 1989; Shin & Johnson, 1978; Wilson, 1967). 그

중에서 Diener(1984)는 행복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만족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을 느끼거나 행복감(조호운, 강종대, 2016)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학생의 행복감은 우울이나 공격성,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와 학습습관, 학교적응, 학업 성적 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감이 청소년기 발달양상을 규정하는 요인임이 보고되었다(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나아가, 아동기에 형성된 행복감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정적인 수 있으며(전미경, 장재숙, 2009), 청소년기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한 행복감은 이후 성인기에 이어 노년기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Yang, 2008)는 연구결과를 미루어볼 때, 주관적 행복감은 아동과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건강한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청소년이 느끼

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정의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에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제시한 Bronfenbrenner (1979: Wachs, 2015에서 재인용)는 미시체계(microsystems), 중간체계(mesosystems), 외체계(exosystems), 거시체계(macrosystems), 시간체계(chronosystems) 등 여러 체계의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해서도 다양한 환경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시체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부모의 지도감독(조소연, 2014)이나 공감 정도(김복인, 이인수, 2013), 부모와 친구, 교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김경호, 이기홍, 2016; 신미 외, 2012; 신효식, 이선정, 2012) 등의 변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로 연구되었다. 더 나아가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있어, 가정불화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고등학생은 행복감이 낮았으며(신승배, 2016), 부모갈등이 높다고 인식한 고등학생 집단은 부모갈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높더라도 학교 행복감이 낮았다(이재연,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미시체계간의 상호작용, 즉 중간체제도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

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중간체계의 영향은 미시체계의 영향에 비해 비교적 덜 강조되어 온 개념이나, 그 의미가 미시체계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그 영향력이 꾸준히 입증되어 왔다(김광웅, 문수경, 2005; 김범수, 2009; 도금혜, 2007; 신승배, 2016; 이경님, 2009; 이재연, 2015; 한세영, 임혜은, 2016). 청소년을 둘러싼 중간체계와 행복감의 관련성 또한 직접적으로 강조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중간체계 개념을 활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는 다수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면서 지나친 통제를 하지 않을수록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김범수, 2009),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사와의 관계 및 자녀의 친구와 관계가 긍정적인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학교에도 원만하게 적응하였다(김광웅, 문수경, 2005). 가정과 또래, 가정과 학교 간 관계가 원만할수록 청소년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을 많이 받았고(도금혜, 2007),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이경님, 2008). 또한 부모가 자녀의 또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 아동의 또래관계가 더 원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세영, 임혜은,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중간체계, 즉 부모간 관계, 부모와 학교 및 친구와 관련된 관계들이 청소년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이 직접적

으로 접하고 있는 미시적 환경을 중점으로 하여 접근하였으며, 미시체계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중간체계의 개념을 강조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망을 연결짓는 중간체계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른 장면(setting)에서 작용하는 발달적인 과정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Bronfenbrenner, 1986), 이러한 중간체계는 환경 간의 간접적인 연결을 통해 상호신뢰와 긍정적 지향 등을 촉진하여 발달하는 개인이 유리한 행위에 반응하도록 돕는다(Bronfenbrenner, 1979/1992).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간체계를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체계들의 관계, 즉 부와 모, 부모와 친구, 부모와 학교교사 및 친구의 부모 간의 상호관계로 정의하며, 이러한 중간체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는 다르게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수용과 승인에 따라 사회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정인석, 1992: 왕영선, 2000에서 재인용). Sarason(1974: Sonn, Bishop, & Drew, 1999에서 재인용)은 공동체 소속감에 대해 ‘개인이 큰 집합체의 의미있는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에 대한 연결망과 구조가 있다는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공동체 소속감을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며, 집단 내에 관계연결망이 있다는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에 공동체 소속감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청소년기에 발달시키는 자아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집단의 특성 및 자신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학교의 학급에 소속된 학생으로서의 자아를 발달시키고 있는 청소년은 소속된 학급의 교우들 간의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소속집단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되고 이러한 약한 소속감은 생활전반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시체계들 간의 불화는 그 미시체계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청소년을 둘러싼 구성원들, 즉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청소년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유대감을 느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공동체 소속감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좀 더 나아가,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의미있는 역할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결망에 통합된다면 소외감이 덜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았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연결망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 연결망에 소속된 구성원들, 즉, 미시체계들 간 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일수록 소속감이 더욱 충족될 것으로 추론되며, 이어서 주관적 행복감 또한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 소속감을 정의하는 요소로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거나 개인적인 관계성을 공유한다는 느낌, 공유된 정서적 연결감을 포함함으로써 소속감

에 있어 구성원들 간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이 공동체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의 연결망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소속감은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는 중간체계가 긍정적인수록 개인의 공동체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의 향상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소속감과 유사한 변인인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부모와 친구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았으며(선미정, 전종철, 2016), 중학교 1~2학년생의 경우에도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인지하고, 만남, 선호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강가영, 장유미, 2013). 또한, 고등학생의 친구집단이 민주적일수록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였다(김원태, 2001).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미시체계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결한 중간체계의 개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공동체 소속감을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은 드물기는 하나, 이상에서 유사한 변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은 공동체 소속감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공동체 소속감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특정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서적인 분리감을 느끼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경, 2017). 또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체 소속감과 유사한 변인인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변에 어려운 친구를 돕거나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여부 등으로 측정된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박재숙, 2011).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성인은 행복감이 높았으며(김소정, 양은주, 권정혜, 2013), 사회 전반에 걸쳐 소속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인지적 표상인 사회소속감이 높은 대학생은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이수진, 2007). 또한, 이웃과의 동질성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게 지각하는 성인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신화경, 조인숙, 2015). 이와 반대로 사회소속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교성, 친밀감, 자기주장과 같은 대인관계적인 행동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불안과 우울에도 취약하였다(Lee, Draper, & Lee,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한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은 주관적으로 지각한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감과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중에 하나이므로(Deci & Ryan, 1985), 그동안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던 소속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감에는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으며(김한나, 김정선, 노승현, 2015; 박소연, 이홍직, 2013), 가정경제형편이 좋을수록 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감(김경호, 이기홍, 2016)이나 행복감(신승배, 2016; 오영수, 이재영, 2014; 이상록 외, 2015)도 높았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높은 행복감(박소연, 이홍직, 2013; 오영수, 이재영, 2014)이 보고되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적 수준과 성적향상은 행복수준과 행복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상, 최영신, 201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기의 행복감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력, 가정경제수준, 청소년의 학업성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가정경제수준, 청소년의 학업성적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간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즉, 중간체계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은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재)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중 2017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7년에 조사된 중학생 1~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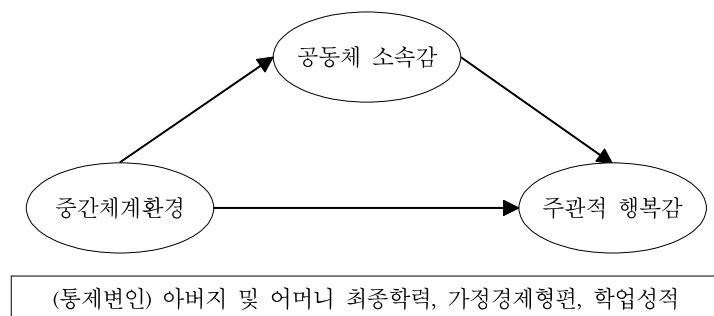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과 고등학생 1~3학년 청소년인 5,050명이다. 심리사회적 이론을 주장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단계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신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고민하게 되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를 경험함(Miller, 2016)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와 역할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는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점(김영지 외, 2017)을 고려하여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49%(2,472명), 여학생이 51%(2,578명)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4.4%(2,240명), 고등학생이 55.6%(2,810명)이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이 47.2%(2,38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남권(부산, 대구, 경남, 경북)이 27.6%(1,395명),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11.8%(596명),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10.2%(513명), 강원도 3.2%(160명)이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44.1%(2,229명), 대도시 43.9%(2,218명),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11.9%(603명) 순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2017년에 수행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에서 정의된 요인과 문항내용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중간체계환경, 공동체 소속감 및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한 문항은 모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의해 보고되었다.

중간체계환경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은 부모 간 관계(1문항), 부모와 친구 간 관계(2문항) 및 부모와 학교 선생님 간 관계(2문항), 부모와 친구 부모 간의 관계(2문항)를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의 1개 문항으로, 청소년이 지각하기에 부모 간 관계의 긍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님의 사이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친구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와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학교 선생님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와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의 2개 문항이 포함되며, 부모와 자녀의 친구 부모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와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해당 사항 없음(6점)’인 6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부모 모두가 청소년의 중간체계 환경에 관련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6점)’으로 응답된 값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각 청소년의 부모님이 자신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 친구의 부모님과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부모와 청소년의 친구 간 관계가 .720, 부모와 학교 선생님과 관계가 .639, 부모와 청소년의

친구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748이었다.

공동체 소속감

공동체 소속감은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행복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1문항)와 전반적인 행복감(1문항)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은 ‘매우 행복하다(1점)’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4점), 모르겠다(5점)’인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행복감에 대한 응답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르겠다(5점)’에 응답한 결과값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으며, 다른 변인들과 응답 결과에 따른 방향성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역코딩을 실시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720이었다.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아버

지 및 어머니의 최종학력,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한 가정경제형편 정도, 본인의 학업성적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김한나 외, 2015; 박소연, 이홍직, 2013)과 가정경제형편(김경호, 이기홍, 2016; 오영수, 이재영, 2014; 이상록 외, 2015), 학업성적(박소연, 이홍직, 2013;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오영수, 이재영, 2014; 전영상, 최영신, 2017)이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청소년이 직접 부모의 최종 학력을 응답하였는데, 최종 학력에 명료한 응답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이 안 계심’과 ‘부모님이 학교를 다닌 적 없음’으로 응답된 경우에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초등학교 졸업(1점)’에서 ‘대학원 이상(6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기에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정생활 형편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다른 변인들과 응답에 따른 방향성을 맞추고자 ‘하의 하(1점)’에서 ‘상의 상(6점)’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경제형편 정도가 높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조사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이 응답한 2016년 2학기 기말고사의 학급 석차를 통해 석차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 석차 백분율을 수능 9등급제와 마찬가지로 9개 등급으로 나누어 구성한 후(이상직, 전영우, 정우연, 한신갑, 2016), 등급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다고 해석하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 공동체 소속감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경로를 검증하기 위하여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활용하여(Anderson & Gerbing, 1988),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2단계에서는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와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기초모형과 비교하여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상대적합지수 중 NFI(Normed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살펴보았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이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매개적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방식¹⁾을 활용하였다. Sobel 검

증의 결과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1>과 같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먼저, 중간체계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간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간 관계($r = .298 \sim .303, p < .001$), 부모-친구관계($r = .279 \sim .292, p < .001$), 부모-학교교사관계($r = .275 \sim .287, p < .001$), 부모-친구부모관계($r = .247 \sim .255, p < .001$)는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 간에 관계가 친밀할수록,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친구 및 학교 선생님, 친구들의 부모와 잘 알고 지낼수록 중·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공동체 소속감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상관을 보여($r = .281 \sim .392, p < .001$),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청소년은 주관적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1) Sobel 검증,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X \rightarrow M \rightarrow Y$ 일

때, $a = X \rightarrow M$ 의 비표준화계수, $b = M \rightarrow Y$ 의 비표준화계수, $s_a = a$ 의 표준오차, $s_b = b$ 의 표준오차)

표 1.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 공동체 소속감 및 주관적 행복감 간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중간체계환경											
1. 부모간 관계	-										
2. 부모-친구관계	.280***	-									
3. 부모-학교교사관계	.232***	.624***	-								
4. 부모-친구부모관계	.195***	.649***	.610***	-							
공동체 소속감											
5. 공동체 소속감	.161***	.192***	.169***	.138***	-						
주관적 행복감											
6. 삶의 만족도	.303***	.292***	.287***	.255***	.392***	-					
7. 전반적 행복감	.298***	.279***	.275***	.247***	.281***	.633***	-				
통제변인											
8. 아버지 최종학력	.143***	.081***	.152***	.103***	.095***	.100***	.093***	-			
9. 어머니 최종학력	.123***	.094***	.173***	.134***	.091***	.110***	.107***	.605***	-		
10. 가정경제형편	.271***	.221***	.233***	.231***	.158***	.268***	.242***	.239***	.231***	-	
11. 학업 성적	.117***	.057***	.070***	.086***	.163***	.107***	.071***	.207***	.169***	.174***	-
<i>N</i>	4652	4640	4631	4600	5044	5048	4721	4604	4688	4976	4253
<i>M</i>	4.155	3.371	3.012	2.676	3.755	3.831	3.067	4.160	4.020	3.744	5.509
<i>SD</i>	.976	1.080	1.075	1.180	1.186	1.098	.664	1.142	1.096	.956	1.850

*** $p < .001$.

중간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 소속감과 부모간 관계($r = .161$, $p < .001$), 부모-친구관계($r = .192$, $p < .001$), 부모-학교교사관계($r = .169$, $p < .001$), 부모-친구부모관계($r = .138$, $p < .001$)는 공동체 소속감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통제변인인 아버지 및 어머니의 최종 학력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경제형편 수준,

학업성적의 경우, 중간체계환경($r = .057 \sim .271$, $p < .001$)과 공동체 소속감($r = .091 \sim .163$, $p < .001$), 주관적 행복감($r = .071 \sim .268$, $p < .001$)의 측정변인들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가정경제형편 수준이 높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중간체계환경이 긍정적이고, 소속감과 행복감도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수준은 $.057 \sim .392$ 로, 중간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 주관적 행복

감, 통제변인 간 상관은 낮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소속감을 단일지표로 측정하였는데, 처음부터 단일지표로 측정된 경우에는 요인부하량은 1로, 측정오차는 $\{(1-\alpha) \times \sigma^2\}$ 값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지표인 경우에는 신뢰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계수(α)는 추정치인 0.7을 활용하여 측정오차를 설정하였다(배병렬, 2017).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 RMSEA와 상대적합지수인 NFI, TLI, CFI로 살펴보았다. χ^2 검증에서는 ‘전집에서 모형은 변수 간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어야 하며, NFI, TLI, CFI의 경우 .90 이상인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홍세희, 2000), RMSEA는 .05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수용가능한 모형, .10 이하는 보통 모

형이며 .10보다 크면 적절하지 못한 모형으로 해석된다(Browne & Cudeck, 1993). 본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chi^2 = 1153.980(df = 39, p < .001)$, $\chi^2/df = 29.589$, NFI = .915, TLI = .861, CFI = .918, RMSEA = .075(.072~.079)로 나타났다(표 2). χ^2 검증에서 ‘모형을 통해 재생된 자료와 전집의 자료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지 않았다. χ^2 검증의 영가설 내용은 너무 엄격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한 결과, TLI는 .90 미만이었으나 .90에 근사한 값이었으며, NFI, CFI는 모두 .90 이상으로 적합도가 좋았다. RMSEA는 .08 이하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모형이므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측정모형의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본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요인부하량(β)의 절대값이 .30 이상²⁾ 이었고, C.R. (Critical Ratio)값도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므로,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3.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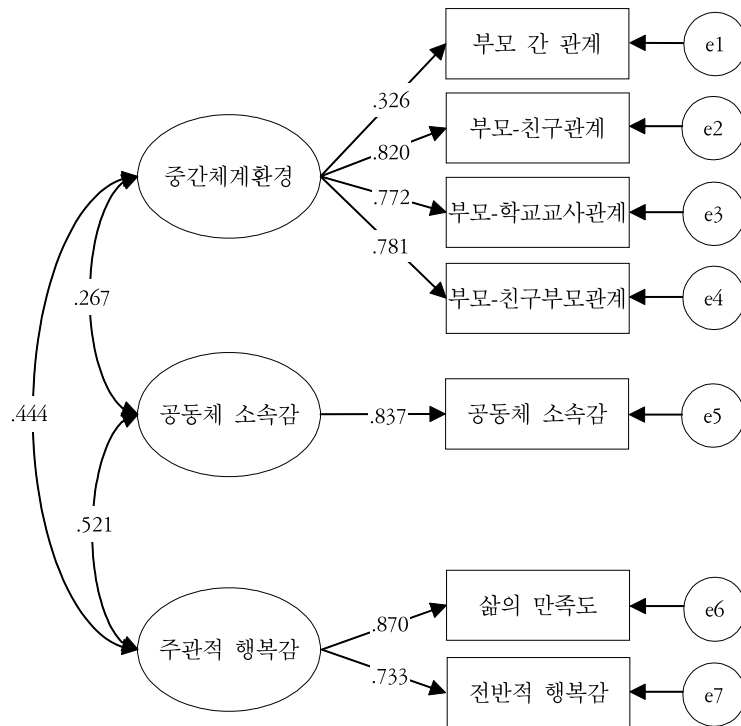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 및 공동체 소속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N = 5050)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LO90~HI90)
측정모형	1153.980	39	29.589	.915	.861	.918	.075 (.072~.079)

2) 일반적으로 ± 0.3 이상이면 해당 요인과의 상관이 높아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성태제, 2014).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2) 모든 경로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chi^2 = 1153.980(df = 39, p < .001)$, $\chi^2/df = 29.589$, $NFI = .915$, $TLI = .861$, $CFI = .918$, $RMSEA = .075(.072 \sim .079)$ 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중간체계 환경과 공동체 소속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3> 및 <그림 3>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중간체계 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간체계 환경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17, p < .001$). 즉, 청소년의 중간체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중간체계 환경이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간체계 환경은 공동체 소속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237, p < .001$)을, 공동체 소속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426, p < .001$)을 미쳤다. 즉, 청소년의 중간체계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공동체 소속감이 높았으며, 공동체 소속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도 높았다. 청소년의 중간체계 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 소속감의 매개적 효과를 Sobel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매개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Sobel's

표 3.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5050$)

경로			B	β	$S.E.$	$C.R.$
중간체계환경	→	주관적 행복감	.951	.317	.068	14.086***
공동체 소속감	→	주관적 행복감	.411	.426	.018	23.425***
통제변인	→	주관적 행복감	.059	.055	.018	3.204**
중간체계환경	→	공동체 소속감	.739	.237	.069	10.665***
통제변인	→	공동체 소속감	.137	.125	.022	6.146***
중간체계환경	↔	통제변인	.068	.237	.006	10.689***
중간체계환경	→	부모간관계	1.000	.326	-	-
중간체계환경	→	부모-친구관계	2.783	.820	.134	20.709***
중간체계환경	→	부모-학교교사관계	2.609	.772	.127	20.552***
중간체계환경	→	부모-친구부모관계	2.892	.781	.141	20.580***
공동체 소속감	→	공동체 소속감	1.000	.837	-	-
주관적 행복감	→	삶의 만족도	1.000	.870	-	-
주관적 행복감	→	전반적 행복감	.512	.733	.015	34.294***
통제변인	→	아버지 최종학력	1.000	.785	-	-
통제변인	→	어머니 최종학력	.929	.761	.034	26.935***
통제변인	→	가정경제형편 정도	.368	.346	.019	19.708***
통제변인	→	학업성적	.566	.275	.038	14.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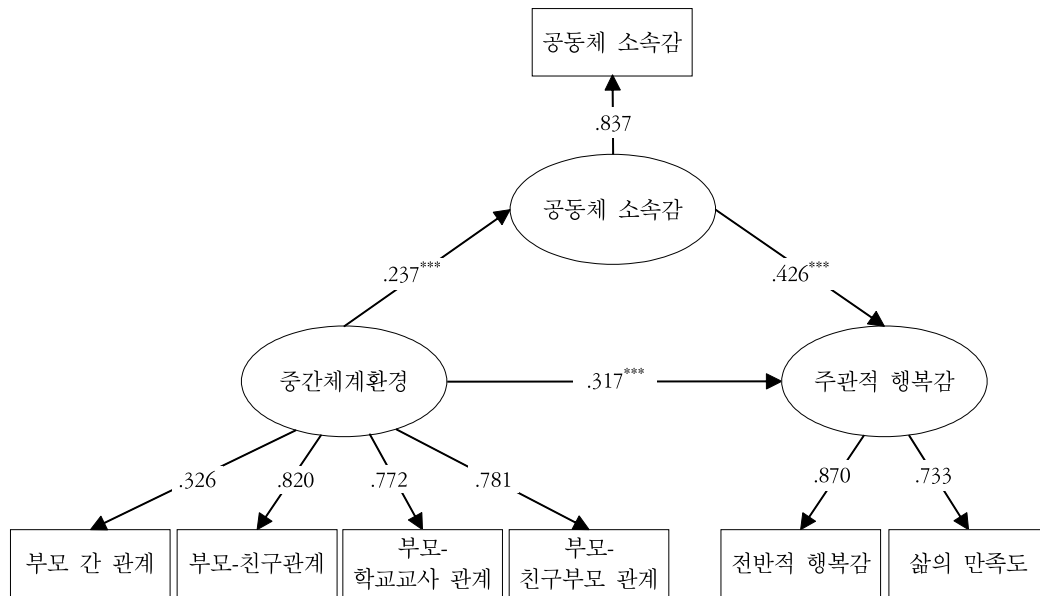
** $p < .01$, *** $p < .001$.

$Z = 9.696$, $p < .001$), 공동체 소속감은 중간 체계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중간 체계환경과 공동체 소속감이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37.4%였으며, 중간체계환경이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설명력은 8.6%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중간체계환경, 공동체 소속감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경로를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p < .001$.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2) 구조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오차항은 제외하여 표기함.

3)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3.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 및 공동체 소속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첫째,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중간체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았다. 즉, 청소년의 부모 간 관계가 친밀할수록, 청소년의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친구 및 학교교사, 자녀 친구의 부모들과 잘 알고 지낼수록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보고하였다. 이는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의 행복감이 낮았으며(신승배, 2016), 부모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김범수, 2009)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중간체계환경은 청소년이 직접 상호

작용하는 대상인 미시체계환경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접근에서 중간체계환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간체계는 청소년이 속한 공동체에 소속한 구성원간의 관계이다. 중간체계환경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체계 중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는 미시체계와 더불어,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또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부모와 친구, 부모와 교사 및 친구부모의 등 본인이 소속한 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에서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다. 부부관계의 갈등이 각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한다면, 부모 간의 긍정적 관계는 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울 것이며 이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가 부와 모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친구 및 교사 간, 부모와 친구부모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는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부모, 친구 등의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소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은 공동체 소속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을 둘러싼 중간체계가 긍정적인 청소년일수록 공동체 소속감이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공동체 소속감으로 인해 주관적 행복감 또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중간체계환경, 즉, 소속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는 구성원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청소년에게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심리적 과정

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이 긍정적이고 원활한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소외감을 덜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지각된 소속감이 성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을 증진한다고 주장한 김소정 외(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소속감이 높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한 이수진(200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청소년이 속한 집단 내부의 관계의 질과 청소년 자신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청소년 자신의 행동이나 성취만으로는 소속집단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전체에 소속된 개인으로서의 삶의 면모를 알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자신이 학교와 같은 집단에 적응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나, 나아가 청소년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형성된 집단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부모 간의 관계, 부모와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나아가 친구의 부모 간 관계 등, 실제로 청소년의 행동요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소년이 소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청소년을 그 집단으로부터 괴리시키거나 반대로 밀착시키기도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소속할 집단을 탐색하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방안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 직접 개입하려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환경에 접근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감은 스스로의 행동이나 성취만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다양한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체계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인적자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안녕감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이 청소년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각 변인에 대한 문항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 및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단일 지표로 측정 및 분석된 문항들이 있어 신뢰도 산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간체계를 구성하는 개념들을 주로 부모 간 관계, 부모와 교사 및 친구, 친구의 부모 간 관계로 측정함으로써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주변 대인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청소년의 다양한 중간체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미시체계들 간 관계들을 중간체계로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중간체계를 구성하는 변수 중 부모 간 관계는 중간체계에 속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 간 관계의 질을 강조하는 질문으로 측정하고 있어, 중간체계 변수들이 측정하는 관계의 밀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시체계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체계로서 작용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중간체계와 공동체 소속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신체 및 인지, 학교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발달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 등 가족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과 직접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너머에 존재하는, 청소년이 소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밝혔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인지적 표상이 매개적 역할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개인적

성취나 미시체계환경과의 관계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유의미한 존재인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미시체계가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영역을 주로 다룸으로써 미시체계들 간 관계가 간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중간체계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한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김경호, 이기홍 (2016). 청소년의 사회관계, 스트레스 및 일탈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구학*, 39(3), 83-105.
- 김광웅, 문수경 (2005).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1), 71-84.
- 김범수 (2009). 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중간체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1세기 사회복지연구, 6(2), 15-44.
- 김복인, 이인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95-218.
- 김소정, 양은주, 권정혜 (2013).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이 공동체 소속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4), 5-42.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 49-88.
- 김한나, 김정선, 노승현 (2015).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2014년 제 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11), 7656-7666.
- 도금혜 (2007).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 25(4), 43-55.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研究*, 21(2), 73-84.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 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 복지연구, 13(4), 47-69.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선미정, 전종설 (2018). 생태체계요인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175-194.
- 성태제 (2014). SPSS/AMOS/HLM을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2판)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신승배 (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50.
- 신화경, 조인숙 (2015).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3), 99-108.
- 신효식, 이선정 (2012).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과 자기이해 변인에 관한 연구: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105-133.
- 염유식, 김경미 (2017).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오영수, 이재영 (2014). 학술논문: 중, 고등학생의 행복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제교육연구, 21(2), 1-31.
- 왕영선 (2000). 학교청소년의 소속감과 부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님 (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 이상직, 전영우, 정우연, 한신갑 (2016).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행복감. 교육사회학연구, 26(1), 121-154.
- 이수경 (2017). 제 3문화 아이들(Third-Culture Kids: TCKs)의 문화적소속감 부재와 심리적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131-154.
- 이수진 (2007). 사회소속감이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27(1), 67-87.
- 이재연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 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과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전영상, 최영신 (2017). 학업성적이 부모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473-490.
- 조소연 (2014). 부모의 지도감독 및 방임과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59-84.
- 조호운, 강종대 (2016). 부모의 과보호, 청소년

- 의 행복감,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구조적관계. *청소년시설환경*, 14(2), 139-146.
- 한세영, 임혜은 (2016). 부모감독과 부모의 또래인식이 남녀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5(6), 695-70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rk, L. E. (2009). 생애발달 I: 영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4판).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윤경, 김민희(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2007).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pp. 42-90). New York: Gardner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Bronfenbrenner, U. (1992). 인간발달생태학. 이영(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본 발간일, 197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Lee, R. M., Draper, M. &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10-318.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iller, P. H. (2016). *Theorie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6th ed.). New York, NY: Worth.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475-492.
- Sonn, C. C., Bishop, B. J., & Drew, N. M. (1999). Sense of community: Issues and considerations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 Controversy and contentions. *Community, Work & Family*, 2(2), 205-218.
- Wachs, T. D. (2015). Assessing bioecological influences. In R. M. Lerner(Editor-in-Chief), M. H. Bornstein., & T. Leventha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Vol. 4. ecological settings and processes* (7th ed.). Hoboken, NJ: Wiley.
- Wilson, W. R.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4), 294-306.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1 차원고접수 : 2019. 01. 03.
수정원고접수 : 2019. 02. 28.
최종게재결정 : 2019. 03. 18.

The Effect of Mesosystem on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Sense of Community

Han, Sae-Young

Yoo, Seolheui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mesosystem on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using the 2017 survey on the Korean Child-Youth Well-Being Index. A total of 5,050 adolescents (2,472 boys and 2,578 girls) were included and all variables were assessed with adolescents' self-repor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SPSS 23.0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using AMOS 23.0. The adolescents' mesosystem affected their subjective well-being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their sense of community. Positive relations with the mesosystem enabled the adolescents to improve their subjective well-being. In addition, those adolescent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the mesosystem were more likely to feel that they belong to the community, which led to higher overall levels of happiness and satisfaction in their live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by emphasizing the crucial influences of the mesosystem and the sense of community on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Also, th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ts in the counseling and education fiel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community, activating communica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forming a positive relationship.

Keywords: adolescent, mesosystem,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